



오늘의 주요기사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예산안 심사 ‘ 매서운 칼질 ’ 안전건설위 효율..	1
江原日報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 예산대비 효율성 따져 '칼...	2
江原日報	03면	도내 ‘ 경계선지능학생 ’ 학교 생활 지원 나선다	3
G1방송		정재웅 도의원,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	4
MBC 강원영동		정재웅 강원도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발...	5
연합뉴스		정재웅 강원 도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6
江原日報	02면	도의회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기업 시찰	7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회 산업위 판교 드론택시 기업 방문	8
江原日報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 중단되나... 강원도의...	9
연합뉴스		강원도의회, 드론 택시 시제가 개발 기업 시찰	10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내년 9월로 연기	11
MBC 강원영동		2023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내년 9월로 연기	12
연합뉴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내년 5월 9월 개최 연기...봄 ...	13
강원도민일보	02면	"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활용 전략 수...	14
江原日報	03면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 4파전 확대	15
강원도민일보	03면	국힘 당협위원장 최성현 추가 지원, 내달 결과발표 ...	16
강원도민일보	16면	동해시민 해안숲길 거닐며 늦가을 정취 만끽	17
江原日報	15면	평창군수배 테니스대회 개최식	18
강원도민일보	17면	평창군수배 테니스대회 성료	18
江原日報	14면	용산서원 정비사업 준공식	19
江原日報	10면	퇴계동자율방범대 연탄 나눔	19
江原日報	21면	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 우수활동 시상식	20
강원도민일보	01면	레고랜드 수습작업 본격화, 김진태-멀린 대면 주목	21
江原日報	23면	사상 최초 겨울 · 중동 개막 ... 지구촌 대축제가 시작...	22
江原日報	23면	황희찬 훈련 제외 ... 대표팀 ‘ 부상 주의보 ’	23
강원도민일보	01면	2022 카타르월드컵 개막, 한국 첫경기 24일	24
江原日報	01면	몸푸는 ‘ 캡틴 ’ 손흥민	25

江原日報	19면	[사설] 강원무역 16개월 적자, 위기 극복할 대책은 ...	26
江原日報	19면	[사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2026년 운행돼야 한...	27
강원도민일보	23면	[사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또 연기'라니	28
강원도민일보	22면	[데스크눈] 철원관광 르네상스와 물살호기	29

江原日報

2022년 11월 21일 (월)

종합 03면

도의회 예산안 심사 ‘매서운 칼질’ 안전건설위 효율적 재정관리 나서

재난안전실 제출안 4억원 감액
‘열린군대 스타트업’ 존폐 기로
앞서 자치경찰위 예산 41억 줄여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박기영)가 강원도청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매서운 ‘칼질’로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나섰다.

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제 31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실이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고 총 4억3,152만원을 감액해 의결했다. 이날 감액된 항목은 △핵심 재난사례 심층 홍보(1억원) △재난복구 업무 추진(1,500만원) △군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1,890만원)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4,000만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3,600만원) △제대군인 정착 지원(8,160만원)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1억4,000만원) 등이다.

특히 전임 도정이 2019년 처음으로 군인들의 정착 차원으로 추진한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은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판단

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존폐 기로에 섰고,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또한 전액 삭감되면서 추진력을 잃었다.

지광천(평창) 부위원장은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8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할 것이냐”고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고 “제대군인 정착 지원 사업 예산도 성과에 비해 좀 많다”고 지적했다.

박기영(춘천) 위원장은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10여년간 부대에 필요한 것들을 도비 및 시·군비로 지원해 왔는데 여전히 지원해줄 것들이 있느냐”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물었다. 또 박 위원장은 “군과 관련된 사업들은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기에는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다 연례 반복적으로 해 오던 행사는 멈추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삭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강원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는 △자치경찰위 운영 지원 1,200만원 △아동지킴이 37억원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4억5,100만원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3,300만원 등 총 41억9,800만원을 감액 처리했다. **이하늘기자**

江原日報

2022년 11월 21일 (월)
사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 예산대비 효율성 따져 '칼삭감'

재난안전실 내년도 4억3,000만원 줄여



강원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박기영)가 강원도청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매서운 '칼질'로 효율적인 재정관리에 나섰다.

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1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실이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고 총 4억3,152만원을 감액해 의결했다. 이날 감액된 항목은 핵심 재난사례 심층홍보(1억원) 재난복구 업무추진(1,500만원) 군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1,890만원)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4,000만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3,600만원) 제대군인 정착지원(8,160만원)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1억4,000만원) 등이다.

특히 전임 도정이 2019년 처음으로 군인들의 정착 차원으로 추진한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은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면서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존폐기roy에 섰고,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또한 전액 삭감되면서 추진력을 잃었다.

지광천(평창)부위원장은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8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할 것이냐"고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고 "제대군인 정책 지원 사업 예산도 성과에 비해 좀 많다"고 지적했다.

박기영(춘천)위원장은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10여년간 부대에 필요한 것들을 도비 및 시군비로 지원해왔는데 여전히 지원해줄 것들이 있느냐"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물었다.

또 박 위원장은 "군과 관련된 사업들은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기에는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다 연례 반복적으로 해오던 행사는 멈추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삭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강원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는 자치경찰위 운영지원 1,200만원 아동지킴이 37억원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4억5,100만원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3,300만원 등 총 41억9,800만원을 감액 처리했다.

江原日報

2022년 11월 21일 (월)

종합 03면

도내 '경계선지능학생' 학교 생활 지원 나선다

정재웅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강원도의회가 학교 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정재웅(더민주·춘천·사진)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맞춤형 지원 내용을 담았다.

경계선지능이란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 구분되지 않지만 평균보다는 낮은 지능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올 9월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를 발의해 학교 밖에서의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에는 학교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학생들을 돕는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겪는 학습 부진을 비롯한 따돌림,



부적응, 소통 부족 등의 문제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확인검사, 학교 적응 및 학습 지

원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공교육 차원에서 경계선지능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하늘기자

G1방송

2022년 11월 19일 (토)
강원

정재웅 도의원,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이 학교 내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에는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목적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학교적응·학습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계선 지능이란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인지 능력을 의미합니다.

MBC 강원영동

2022년 11월 20일 (일)
강원

정재웅 강원도의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발의

박은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재웅 강원도의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목적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선 지능 확인 검사,
학교 적응과 학습 지원 사업 재정 지원 등을
규정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이란 지능 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평균보다는 낮은 지능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인지능력을 말합니다.

정재웅 강원 도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

학습 부진부터 따돌림 문제까지 체계적 지원 토대 마련



정재웅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정재웅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학교 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이란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평균보다는 낮은 지능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IQ) 70~85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

조례안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목적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선 지능 확인 검사, 학교적응과 학습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을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9월 '강원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조례'를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이 교내에서 겪는 학습 부진을 비롯해 따돌림, 부적응, 소통 부족 문제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공교육 영역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계선 지능 학생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습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江原日報

2022년 11월 21일 (월)
종합 02면



강원도의회 제공

도의회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기업 시찰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 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에 있는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기업을 찾아 개발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살피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21일 (월)
종합 0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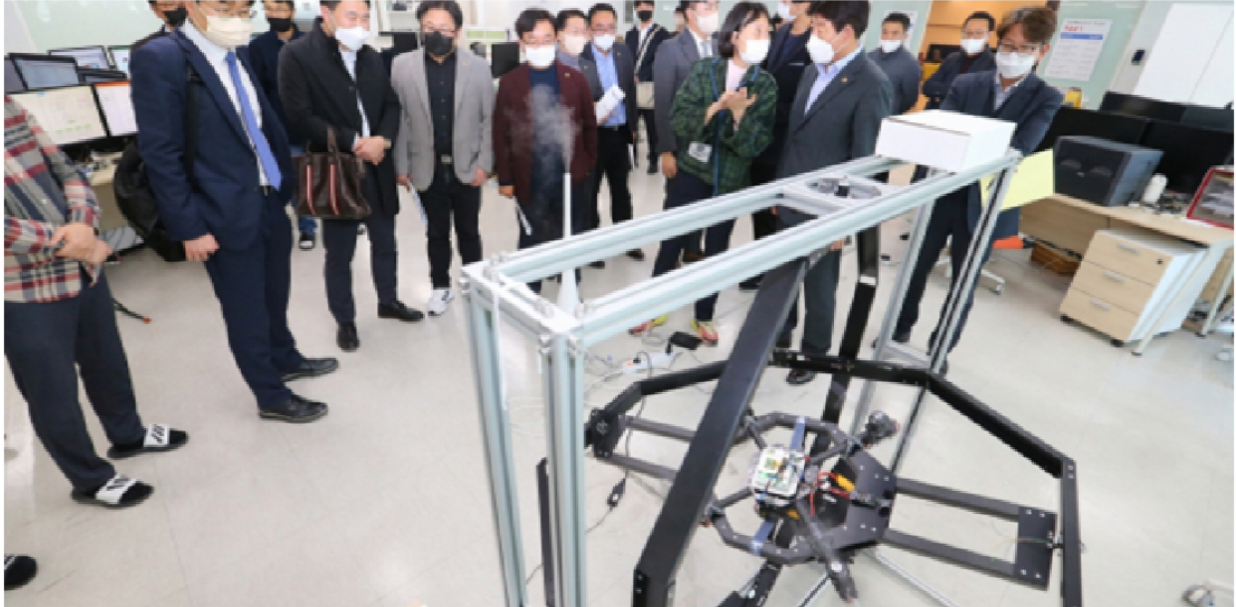


도의회 산업위 판교 드론택시 기업 방문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 성장센터에 있는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기업을 찾아 개발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살폈다.

江原日報

2022년 11월 21일 (월)
사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 중단되나... 강원 도의회 결정 주목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 성장센터에 있는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기업을 찾아 개발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강원도의회가 최문순 전 강원도정이 중점 추진해 온 일명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중단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도의회 경제통상위원회(위원장:김기철)는 21일 회의를 열고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UAM)관련 예산 심사 전에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드론 관련 사업은 산업국 소관으로 오는 23일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경통위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 성장센터에 있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기업을 찾아 개발 추진 현황과 계획을 살폈다. 김기홍(원주) 도의원은 "지난해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시제기 개발 사업에 집행한 강원도비는 38억원으로 이 중 64%가 인건비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34%는 시제기 개발비에 투입됐다고 하지만 기업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인식되는 수준"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박대현(화천)도의원도 "강원도에서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개념으로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로 여겼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배달용' 개념에 그치는 수준밖에 안됐다"며 "이미 들어간 비용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투입될 예산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대 도의회에서도 드론택시 상용화가 불투명한 점을 비롯해 강원도비를 투입해 개인 사업체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지난해말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도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명목으로 편성된 145억원 통과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한편 강원도는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UAM) 시제기(시험제작 비행기)를 국내 최초로 올해 3월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개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국내 첫 상업 운항을 시작한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시제기 개발 전체 사업비는 271억원으로 2021년 76억7,000만원, 올해는 145억원이 투입됐다.

 연합뉴스

2022년 11월 18일 (금)
종합

강원도의회, 드론 택시 시제가 개발 기업 시찰



(춘천=연합뉴스)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 성장센터에 있는 드론 택시 시제가 개발 기업을 찾아 개발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살피고 있다. 2022.11.18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21일 (월)

종합 02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내년 9월로 연기

5월 산불 집중 시기 고려 변경

코로나19 여파로 한차례 연기됐던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이번에는 대형산불 집중 발생 시기라는 점을 감안,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5월 개최 예정이었던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내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개최된다.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는 당초 내년 5월 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023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주개최지 고성은 매년 봄철 대형산불 위험, '양간지풍'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또, 올

해 산불조심 기간은 6월 19일까지 한 달 정도 연장됐다.

이와 관련,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는 봄철 산림엑스포 개최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개최 시기를 가을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고성 등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산림엑스포를 내년 9월 연기 개최로 최종 결정했다.

박지은

MBC 강원영동

2022년 11월 20일 (일)
강원

2023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내년 9월로 연기

김인성



당초 내년 5월부터 6월까지
고성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3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가
봄철 산불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9월로 연기됐습니다.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는
내년 5월 4일 고성에서 개막할 예정이었던
산림엑스포를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강원도의회에서
봄철엔 산불 발생 우려가 높고
가을엔 단풍 관광객과
지역축제와의 연계성으로
관심이 높아질 거라며
조정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9월 개최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내년 5월 9월 개최 연기 ...봄 대형산불 위험

조직위 "현장 관람객 안전이 최우선...다양한 가을 축제와 연계"



산림엑스포 성공기원 식목행사
[고성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시기가 산불 조심 기간을 고려해 내년 5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는 내년 5월 4일 6월 6일 개최 예정이던 산림엑스포를 9월 22일 10월 22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 개최지인 고성군과 부 행사장인 속초.인제.양양은 매년 봄철 대형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올해는 대형산불 증가로 인해 산불 조심 기간과 별도로 6월 19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운영된 바 있다.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봄철은 산불 위험이 큰 데다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를 봄철에서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직위는 개최지역 4개 시군과 산림청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지난 18일 이사회를 통해 개최 시기를 9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을 이유로 개최 시기를 올해 5월에서 내년 5월로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두 번째 연기 결정이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현장 관람객 안전 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이라며 "행사가 연기된 만큼 다양한 가을 축제와 연계해 특별하고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21일 (월)
종합 02면

“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활용 전략 수립 철저”

특별자치국 예산 7억9889만원
강원도의회 기행위 정례회 가결
도민·국민 공감대 연결도 주문



김길수 의원 최승순 의원 임미선 의원

강원도의회가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활용 방향에 대한 전략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강원도에 주문했다. 국회는 지난 9월 말,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한 가운데 도의회에선 내년 6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 정부지원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

정수)는 지난 18일 제315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 특별자치국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길수(영월) 의원은 “(강원이) 제주, 세종과 함께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가) 통합 운영되는 건,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과 다르다”며 “지원위가 개최될 때마다 3개 시·도 안건을 공통으로 심의하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용식 특별자치국장은 “아니다”라며 “추진단에서 총괄하고, 제주, 세종, 강원도 조직이 별도의 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 세종, 저희는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강원도도 지원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원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전략과 대책을 잘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목

표 수립과 관련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를 국민과 도민들이 직감할 수 있는 것, 국가적 과제와도 연계될 수 있는 것을 담으면 좋겠다”며 “또, 특별법에 ‘낙후된’이라는 단어는 특별자치도의 당위성이 함축된 단어다. 국민적 공감대와 연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승순(강릉) 의원은 법률자문단 운영과 관련해 “제주 등의 사례를 비추면, 특례가 성공하느냐 아니냐에 (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며 “재정, 법률적인 부분의 자문에 있어서 건건의 의뢰할 건 아닌 것 같다. 전문가들의 자문료가 아닌 인건비 개념으로 반영돼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박국장은 “적어도 2명 정도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예산을 보면, 행사, 포럼, 세미나 등 홍보 관련 부분이 많다”며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잘 체크해 다채로운 행사로 도민 참여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특별자치국 2023년도 예산은 7억9889만원으로, 특별자치도 홍보강화에 3억79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이철화

江原日報

2022년 11월 21일 (월)
종합 03면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 4파전 확대

조강특위 추가 공모 마감

속보=국민의힘이 조직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정치 1번지인 ‘춘천갑’ 당협위원장 자리에 누가 오르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춘천갑·원주를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를 마감한 결과(본보 지난 16일자 3면 보도), 최성현 전 춘천시장 후보 1명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올 6월 강원 연고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과 강대규·김혜란 변호사와 등이 이미 신청을 마친 것을 감안하면 춘천갑 당협위원장은 총 4명이 경쟁하게 됐다.

이번 사고당협 재정비는 전당대회

최성현 前 춘천시장 후보 도전

6월 등록마친 노용호 국회의원

강대규·김혜란 변호사와 경쟁

‘원주을’ 기존 6명서 늘지 않아

를 넘어 내년 말 본격화될 2024년 총선 공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성현 전 춘천시장 후보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패했으나 44.84%의 득표율을 올리며 저력을 확인했고, 제9대 강원도의원 역임 등 오랜 시간 춘천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해 온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상대 후보들도 만만치 않

다. 노용호 국회의원도 현역인데다 영동권 출신이지만 17년간 춘천을 주무대로 강원도당 사무처장 등 당직자를 지내면서 발을 넓혀 왔고, 최근에는 남춘천역 인근에 지역 사무실을 설치하면서 총선을 염두에 두고 활동 반경을 확장시키고 있다. 게다가 현재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직을 맡고 있어 중앙당 인맥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강대규 변호사 또한 18여년간 당직 생활을 하며 강원도당 법률지원단장 등을 맡아 당내 인지도가 높다. 또 올 6월 김진태 강원도지사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춘천 출신의 김혜란 변호사도 원주에서 춘천으로 주무대를 옮긴 후 ‘정치신인’으로 당협

위원장에 도전장을 냈다.

한편 원주를 공모 신청을 고민하던 최재민 도의원은 최종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 의원은 “지금 도의원직에 충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이번 원주를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에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까지 원주에는 권이중 변호사, 전병선 전 원주시의원, 박동수 변호사, 윤용호 대한생활체육회 강원도회장, 장승호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 안재윤 미래교육아카데미 대표 등 6명이 신청한 상태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1일부터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 당협위원장을 발표한다. 이하늘기자

강원도민일보

국힘 당협위원장 최성현 추가 지원, 내달 결과발표 '주목'

노용호·강대규·김혜란 등 '4파전'
원주를 선거구 추가없이 6명 마감

속보=국민의힘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추가 공개모집에 최성현(사진) 전 국민의힘 춘천시당 후보(11월 18일 웹 보도)가 지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17~18일 66개 선거구에 대한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를 실시한 가운데 도에서는 최성현 전 춘천시당 후보가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조직위원장에 지원했다.
최성현 전 후보는 본지 통화에서 "춘

천에서 바닥부터 다져왔던 인적 네트워크, 춘천시당 선거를 치르면서 끌어올린 인지도를 잘 활용해 총선 준비에 나서고 싶다"고 했다.

이로써 춘천갑 당협위원장 후보는 최 전 후보를 비롯해 노용호(비례) 국회의원, 강대규·김혜란 변호사 등 4명이 됐다.

원주를 선거구는 추가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 기존 신청자 6명으로 마감했다. 당초 신청 계획이 있었던 이재민(원주) 강원도의원은 "추가공모에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주를 당협위원장 후보는 권이중 변호사, 전병선 전 원주시의원, 박동수 변호사, 윤용호 대한생활체육회 강원도회장, 장승호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 안재운 미래교육아카데미 대표 등 6명이다.

국민의힘은 공모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후,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 조강특위는 21일 심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춘천갑·원주를 선거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허영·송기현 국회의원)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선거구 탈환을 위한 국민의힘 주자들의 움직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춘천 선거구는 '분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진영의 쟁점이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공산이 커졌다.

이설 화 l ofi@kado.net

2022년 11월 21일 (월)
종합 03면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21일 (월)
지역 16면

동해시민 해안숲길 거닐며 늦가을 정취 만끽

본지 주관 걷기대행진 성료
1300여명 참가 건강 재충전
자연경관·경품추첨 등 호평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을 충전함과 함께 동해시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본지 창간 30주년 기념 '2022년 동해시민 행복한 섬 해안숲길 걷기대행진'이 1300여명의 시민·관광객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천곡동 한섬 해안숲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강원도민일보가 주최·주관하고 동해시와 동해시체육회, 지역내 기관·단체·기업체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감추사 한섬방면 주차장을 출발해 해안숲길→한섬해변 입구→한섬숲길→휴게쉼터 입구에서 반환점을 돌아→벧머리전망대→한



본지 창간 30주년 기념 '2022년 동해시민 행복한 섬 해안숲길 걷기대행진'이 1300여명의 시민·관광객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9일 천곡동 한섬 해안숲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섬해변 입구→행복한섬길→한섬빛 터널을 거쳐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4km의 코스를 걸었다.

참가자들은 망망대해 동해바다를 보며 호연지기를 기르다, 어느순간 발밑에 보이는 아찔한 높이의 해안절

벽 기암괴석에 눈을 호강하고, 청량한 파도소리에 달린 귀가 트이는가 하면, 해안을 따라 즐비한 소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의 향내를 온몸에 받으며 힐링을 만끽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규언 시장, 이철

규 국회의원, 이동호 시장의장, 김영근 강원도민일보 이사, 김윤재 시체육회장, 최재석·김기하·유순옥 도의원, 이창수·민귀희 시의원, 김원오 동해농협 조합장, 김남성 도우수협회 상임고문, 김원섭 시재향군인회장, 김대성 시자원봉사센터장, 박종현 쌍용 C&E 이사 등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들도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해안숲길을 거닐며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동해경찰서·동해시보건소·동해모범운전자회·동해해병전우회·목호신협봉사단이 자원봉사를 통해 교통정리·접수안내·코스유도·응급처치 등을 지원, 안전하고 성공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왔다.

대행진 이후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내 기관·단체·기업체에서 협찬한 김치냉장고와 자전거·가전제품 등 경품에 대한 추첨행사가 진행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전인수

江原日報

2022년 11월 21일 (월)
지역 15면



평창군수배 테니스대회 개최식 2022 평창군수배 테니스대회 개최식이 지난 19일 평창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심재국 평창군수, 지광천 도의원, 박춘희·이창열·남진삼 군의원과 사회단체장, 테니스 동호인 단체 20개팀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21일 (월)
지역 17면



평창군수배 테니스대회 성료 평창군수배 테니스대회가 지난 19일 평창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심재국 군수, 지광천 도의원, 박춘희·이창열·남진삼 군의원과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 군내 테니스 동호인 20팀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테니스협회(회장 천장호) 주관으로 열렸다.

江原日報

2022년 11월 21일 (월)
지역 14면



용산서원 정비사업 준공식 용산서원 정비사업 준공식이 지난 18일 동해시 북삼동 현지에서 심규언 동해시장, 이동호 시의장과 시의원, 김기하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2년 11월 21일 (월)
지역 10면



퇴계동자율방범대 연탄 나눔 춘천 퇴계동자율방범대(대장:이선재)는 20일 대원들과 가족, 노용호 국회의원, 정재웅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갖고 관내 취약계층에 연탄을 전달했다.

江原日報

2022년 11월 21일 (월)

인물 21면



◇강원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 및 우수활동시상식이 지난 18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개최됐다.

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우수활동 시상식

강원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 및 우수활동 시상식이 지난 18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개최됐다. 여성가족부와 강원도가 주최하고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 대회는 도내 청소년 자원봉사와 청소년활동의 우수 사례를 발굴, 청소년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이 최우수터전 부문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유정

은(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 김도흔(강릉관동중), YES(링컨 하우스스쿨), 글품쟁이(속초시 청소년수련관)가 청소년 부문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았다.

이경희 도 복지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봉사를 실천한 여러분에게 존경과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은 “자원봉사와 함께 폭넓은 독서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견문을 넓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21일 (월)

종합 01면

레고랜드 수습작업 본격화, 김진태-멀린 대면 주목

오늘 멀린 측 요청 도청서 면담
도 상대 계약파기 소송 여부
주차장 등 추가개발 방향 관심
도, 보증채무 연내 상환 재설명

속보=레고랜드 사태가 수습국면으로 접어들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와 존야콥슨 멀린 엔터테인먼트 총괄사장이 21일 첫 대면(본지 11월 7일자 1면)한다.

금융·채권시장을 뒤흔들었던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이 어느정도 정리, 수습작업이 본격화된 시점에서의 만남인

만큼 이날 도와 멀린 간 의견 조율이 주목된다.

이번 사태 수습책과 관련, 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보증채무를 연내 전액 상환기로 해 채권단 측이 소송을 보류했다. 또, 2050억원 보증채무 예산안이 담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1차 심의 진행 후, 12월 1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의결여부가 결정된다.

본지 취재 결과, 20일 입국한 존야콥슨 멀린 총괄사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21일 오후 도청을 방문, 김 지사와 첫 면

담을 갖는다. 이 자리엔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사장 등이 배석한다. 이번 면담은 멀린 측 요청으로 마련됐다.

앞서 멀린 측은 지난 9월 28일, GJC에 대한 도의 회생신청 계획 발표 과정, 당시 발표가 시장에서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받아들여져 채권이 부도처리돼 전체 시장 경색까지 이어진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왔다. 또, 멀린 측은 정부와 강원도의 대책안도 세부 분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멀린 측이 채무보증을 선

강원도를 상대로 계약파기 등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냐는 의견도 나왔던 만큼 이날 만남에서 양 측의 접점 찾기가 주목된다.

멀린 측은 전임 최문순 도정 당시, 강원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레고랜드 사업 한 축을 담당하는 GJC에 대한 강원도의 자금조달 및 재정지원 책임 약속을 중시해왔다. 그러나 민선 8기 도정 들어 발표된 GJC에 대한 회생신청 여파와 관련, 강원도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GJC의 특수목적법인인 아이원제일차가 부도처리됐다는 점에서 멀린 측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모

아진다. 또, 멀린 측은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모든 신규투자는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도와 협의가 필요한 주차장 사업 등 추가 개발사업 추진 방향 설정도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멀린 측과의 면담에서 보증채무 연내 상환 등 강원도 차원의 안정화 대책을 다시 설명할 계획이다. 멀린과는 상생발전 관계로 관계의 변화는 없다"고 했다.

박지은

江原日報

2022년 11월 21일 (월)
축구 23면

사상 최초 겨울·중동 개막 ... 지구촌 대축제가 시작됐다

숫자로 알아보는 월드컵

손흥민 韓 최다골 경신 관심
32개국 체제 이번이 마지막
본선 진출국 수 48개국 확대

‘세계인의 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드디어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세계 최고의 축구스타들은 이제 조국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22화제를 맞은 이번 월드컵을 숫자를 통해 알아본다.

■1=이번 월드컵은 최초의 중동 월드컵이자 최초의 겨울 월드컵이다. 카타르의 무더운 날씨를 고려해 여름에 열리던 월드컵이 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열리게 됐다.

■3=한국 선수의 월드컵 본선 최다골 기록, 은퇴한 안정환, 박지성과 함께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다. 손흥민은 이번 대회에서 득점을 기록하면 단독으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일정 (한국시간)

11.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12.1목	2금	3토
카타르-에콰도르 새벽 1시	세네갈-네덜란드 새벽 1시	멕시코-폴란드 새벽 1시	스페인-코스타리카 새벽 1시	포르투갈-가나 새벽 1시	네덜란드-에콰도르 새벽 1시	프랑스-덴마크 새벽 1시	크로아티아-캐나다 새벽 1시	브라질-스위스 새벽 1시	네덜란드-카타르 0시	튀니지-프랑스 0시	캐나다-모로코 0시	대한민국-포르투갈 0시
잉글랜드-이란 밤 10시	미국-웨일스 새벽 4시	프랑스-호주 새벽 4시	벨기에-캐나다 새벽 4시	브라질-세르비아 새벽 4시	잉글랜드-미국 새벽 4시	아르헨티나-멕시코 새벽 4시	스페인-독일 새벽 4시	포르투갈-우루과이 새벽 4시	에콰도르-세네갈 0시	호주-덴마크 0시	크로아티아-벨기에 0시	가나-우루과이 0시
아르헨티나-사우디아라비아 오후 7시	모로코-크로아티아 오후 7시	스위스-카메룬 오후 7시	웨일스-이란 오후 7시	튀니지-호주 오후 7시	일본-코스타리카 오후 7시	키예프-세르비아 오후 7시	이란-미국 새벽 4시	사우디아라비아-멕시코 새벽 4시	코스타리카-독일 새벽 4시	카메룬-브라질 새벽 4시	세르비아-스위스 새벽 4시	
덴마크-튀니지 밤 10시	독일-일본 밤 10시	우루과이-대한민국 밤 10시	카타르-세네갈 밤 10시	폴란드-사우디아라비아 밤 10시	벨기에-모로코 밤 10시	대한민국-가나 밤 10시	웨일스-잉글랜드 새벽 4시	폴란드-아르헨티나 새벽 4시	일본-스페인 새벽 4시			

A 카타르-에콰도르·세네갈-네덜란드 B 아르헨티나-사우디아라비아·멕시코-폴란드 C 스페인-코스타리카·독일-일본 D 브라질-세르비아·스위스-키예프
E 잉글랜드-이란·미국-웨일스 F 프랑스-호주·덴마크-튀니지 G 벨기에-캐나다·모로코-크로아티아 H 포르투갈-가나·우루과이-대한민국

이 기록을 보유하게 된다. 부상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그는 최근 1차전 우루과이전부터 출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이번 월드컵 최종 명단에 포

함된 발롱도르 수상자 수, 직전 두 대회에는 발롱도르 수상자가 2명씩밖에 없었다. 메시와 호날두가 강산이 한 번 바뀌는 동안 발롱도르를 양분했기 때문. 2018년 모드리치, 올해

카림 벤제마가 수상하며 4명의 발롱도르 위너가 명단에 포함됐다. 하지만 20일 벤제마가 부상으로 낙마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실제로 대회에 나서는 선수는 셋뿐이다.

■6=한국의 역대 월드컵 본선 승리 횟수. 유럽팀을 상대로 5승, 아프리카팀을 상대로 1승을 거뒀다. 아직까지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승리가 없는 가운데 1차전 우루과이전에서

첫 승리를 노린다.

■8=지금까지 월드컵에서 우승을 경험한 국가는 8개국이다. 브라질(5회), 독일, 이탈리아(이상 4회), 아르헨티나, 프랑스, 우루과이(이상 2회), 잉글랜드, 스페인(이상 1회)이다. 이 중 이탈리아는 유럽 예선에서 탈락하며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18=첫 월드컵 출전을 앞둔 한국 선수 수. 26명의 최종 엔트리 중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조원우, 김승규, 정우영(알사드), 김영권, 홍철 등 8명만 월드컵을 경험해 봤다.

■32=카타르 대회는 32개국 체제로 치르는 마지막 월드컵이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본선 진출국 수가 48개국으로 확대된다.

■310조=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카타르가 이번 월드컵을 위해 2,290억달러, 우리 돈 약 310조원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직전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투자비용 116억달러의 19.7배에 달한다. 권순천기자

江原日報

2022년 11월 21일 (월)

축구 23면

황희찬 훈련 제외 ... 대표팀 '부상 주의보'

“햄스트링 긴장 회복에 집중 ... 부상자 분류 아냐”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희찬(26·울버햄프턴)과 수비수 윤종규(24·FC서울)가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에 불편함을 느껴 팀 훈련에서 제외됐다.

황희찬과 윤종규는 지난 19일 오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열린 대표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훈련 때도 훈련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표팀 관계자에 따르면 두 선수 모두 왼쪽 햄스트링에 피로 및 긴장감을 느껴 팀 훈련에서 빠진 채 숙소

에서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의무팀 스태프 1명이 숙소에 남아 이들의 훈련을 돕는다.

우리 선수단은 대회 개막일인 20일에는 카타르 도착 후 처음으로 휴식을 가질 예정이어서 황희찬과 윤종규는 이틀 동안 회복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둘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이날 오전에는 코어 및 피지컬 훈련을 했고, 오후에는 전술 훈련을 하며 월드컵 준비를 이어 갔다. 황희찬과 윤종규 모두 부상자로 분류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관계자 말이다.

다만, 황희찬의 경우 햄스트링 문제로 카타르 입성 후에도 팀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황희찬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서 핵심 공격수라 더딘 회복 속도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윤종규도 김태환(울산)과 김문환(전북)이 버티고 있던 오른쪽 풀백에서 경쟁력을 키워 가며 생애 처음 월드컵 대표팀까지 발탁된 터라 기대가 큰 선수다.

한국은 오는 24일 우루과이와 대회 조별리그 H조 1차전을 치른다. 결전의 날까지는 이제 고작 닷새가 남았을 뿐이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21일 (월)

종합 01면

2022 카타르월드컵 개막, 한국 첫경기 24일

춘천출신 손흥민-황희찬 관심
92년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겨울에서, 아랍 국가에서 열리는 지구촌 최대 축구 잔치가 킥오프됐다.

2022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은 21일 오전 1시(이하 한국시간) 알코르의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카타르-에콰도르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

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내달 19일 오전 0시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릴 결승전까지 총 29일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국내 축구 팬들이 주목하는 H조 한국 첫경기는 24일 오후 10시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우르과이전이다. 2차전인 가나전은 28일 오후 10시, 3차전인 포르투갈전은 12월 3일 0시에 각각 열린다.

강원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춘천출신 축구스타인 손흥민과 황희찬의 활약 여부다. 특히 대표팀 주장이자 최고 스타인 손흥민은 최근 부상을 당해 출전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등극하는 등 커리어 정점에서 맞는 월드컵을 놓치고 싶지 않은 손흥민의 의지도 남달라 결국은 그라운드에서 겨룰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호석 kimhs86@kado.net

江原日報

2022년 11월 21일 (월)
종합 01면



연합뉴스

몸푸는 '캡틴' 손흥민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등 선수들이 지난 19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러닝으로 몸을 풀고 있다.

江原日報

2022년 11월 21일 (월)

사설/칼럼 19면

강원무역 16개월 적자, 위기 극복할 대책은 뭔가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다. 올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6.1% 넘게 적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연중 가장 큰 월간 수출 감소 폭을 나타냈다. 문제는 강원 월간 수출의 하락 폭이 올 하반기 들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 행진도 16개월째 이어졌다. 강원도의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는 4억7,881만 달러로 지난해 7월 이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적자 폭 13억 달러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주요 수출품목인 의료기기, 전선뿐만 아니라 합금철과 시멘트, 채소류 등도 1년 전에 비해 적었다. 주요국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한 글로벌 수요 위축과 계속되는 중국 수출 부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수출 효자 종목인 의료용 전자기기마저 수출액이 22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년에 이어 또다시 의료기기 수출 쇼크다. 지난달 도내 의료용전자기기 수출액은 3,082만 달러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29.3% 줄어든 것으로 2020년 12월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으로 팔리던 의료기기가 54.6% 줄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패권 싸움이 반도체

를 넘어 바이오와 의료기기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영향을 받았다. 또 중국 정부가 의료기기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 제고를 몇 년 전부터 강조하면서 수입 대체가 빠르게 진행된 부분도 영향을 줬다.

강원 수출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며 고난의 시간을 맞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수출은 전례 없는 큰 폭의 감소를 보이며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물론 글로벌 경기침체나 무역전쟁 등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이대로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늦기 전에 위기를 극복하고 강원수출을 되살릴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 강원도는 2022년까지 수출 3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헛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 수출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자체는 정부와 함께 수출 정책 수립, 지원 시책 실행 구조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재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외시장 다각화, 현지 마케팅 강화 등도 이뤄져야 한다. 수출 주도 성장을 하는 경제에서 끊임없이 주력 수출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역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江原日報

2022년 11월 21일 (월)

사설/칼럼 19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2026년 운행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양 보호 문제로 발목이 잡혀 무산 위기에 놓였던 양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사업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 데 이어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마지막 주에는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지난주 국무총리실의 실무진들이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 현장과 원주지방환경청 등을 찾아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국무총리실의 현장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알

려졌다. 오색케이블카 설치하는 윤 대통령의 강원도 대선 공약이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윤

석열 대통령에게 오색케이블카 연내 환경협의 마무리 요청을 하자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오색케이블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당초 2025년 착공, 2027년 운영을 목표로 해 왔으나 지금과 같은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2026년 이전 운영 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이후에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 11개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정부와 강원도의 강한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면 수월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각종 인허가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적법성, 공익성이 담보된

각종 인허가와 소송 통해 공익성 확보

도·양양군 이번 주 환경평가 보완서 제출

국무총리실 실무진들, 현장 방문 점검

사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권의 성향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국에 케이블카가 속속 설치되고 있지만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만큼은 ‘국립공원’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잣대가 적용돼 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더 이상 지체돼선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50만 강원도민의 40년 된 숙원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

는 결코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아니라 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가장 적은 친환경 개발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된다”며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제 환경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재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듯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세우겠다는

이면에 오직 경제의 논리만 있다고 일도양단식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설악산이 신음하고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은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발길에 의해서임을 설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등산객들의 발길에 의해 나무뿌리가 드러나고, 풀이 짓밟히고, 온갖 취사 행위 등 엄청난 오염원은 바로 산을 직접 오르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것이다. 등산로의 휴식년제 등을 통해 설악산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생공존을 실현해야 한다. 비장애인들만이 설악산을 감상하고 느끼지는 것은 또 다른 이기주의다. 장애인, 노약자들도 설악산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21일 (월)

사설/칼럼 23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또 연기'라니

-뒤늦은강풍 검토로도정 불신 야기, 전문적 준비 있어야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다시 5월에서 9월로 연기됐습니다. 2022년 1월 코로나19대 유행 여파로 한 차례 연기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대형산불 집중 발생 시기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세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행사인데, 두 차례나 연기한 것은 강원도정에 불신을 보태는 것입니다. 여태 지역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치밀한 준비가 없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습니다.

개최 연도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늦출 때 온라인 사이트까지 바꾸면서 도 대대적인 홍보나 이벤트 없이 슬그머니 바꾸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병했기에 연기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강풍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 전반적인 준비에 허술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현재 엑스포 사이트에는 빠른 시일 내 홈페이지 정비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는 안내문만 떠있고 5월 개최로 여전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과거 2023년도로 연기 사실을 알릴 때는 물론 이번 9월 연기를 오히려 홍보의 기회로 삼는다든가 하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철저한 준비성을 찾기 어려워 업무 처리에 누수가 엿보입니다. 지난 8월 강원도 보고에서 콘텐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김진태 지사가 취임하면서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직을 직접 맡았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신축 강원도청사 문제, 고향기부금제 신도입, 환동해본부 위상 강화 등 김 지사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한 상태여서 조직위원장으로써 업무를 직접 챙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임부위원장과 사무처를 관장하는 사무처장 역시 내로라하는 산림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2016년 속초·인제·고성·양양 설악권 4개 시·군 번영회장단 회의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박웅삼 인제군번영회장의 '세계강원산림엑스포 개최' 제안 설명을 계기로 세계산림엑스포를 통해 설악권 경제 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와 취지를 피력한 미래 경제를 향한 산물입니다. 강원도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를 공식 선언한 지도 올해로 4년차입니다. 당초대로 올해 5월 개최됐다면 144개국에서 참가해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와 연동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렸을 것입니다.

세계박람회는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그치고 맙니다. 투입된 재원에 수십배 효과를 내도록 사무처는 남다른 각오로 뛰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21일 (월)

오피니언 22면



데스크는

이재웅 철원주재 부국장

철원관광 르네상스와 물실회기(勿失好機)

철원군이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비롯해 새롭게 개장된 관광지들의 인기에 힘입어 관광객 천만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철원지역은 몇 해 전만 해도 고석정을 비롯한 매월대·삼부연·직탕폭포, 순담계곡, 용양늪, 학저수지, 송대소 주상절리, 소이산, 두루미탐조와 민통선 내를 방문하는 안보관광이 주류를 이뤘다. 2020년 10월 철원 동송읍 장흥리와 갈말읍 상사리를 연결하는 비대칭 현수교 은하수교(길이 180m·폭 3m) 개통을 시발점으로 2021년 11월 철원 순담에서 드르니를 연결하는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개장하면서 철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현재 고석정 꽃밭과 소이산 모노레일, 철원역사문화공원, 국제두루미평화타운, 한탄강 물윗길, 두루웰 숲속문화촌, DMZ 생태평화공원 등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특히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은 철원관광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 되고 있다. 주상절리길은 개통 1년만에 유료 관광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철원군 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주상절리길은 2021년 11월 19일 개장 이후 올해 11월 11일 기준 총 100만 2427명이 방문해 입장권 수입 73억 1726만 5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개장하면서 철원군이 예상했던 연간 관광객 100만명 돌파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주상절리길에 관광객이 10만명 이상 방문한 달은 올해 5월 10만 7268명, 10월 21만 103명이다. 이는 봄과 가을철 고석정꽃밭이 개장한 시기로 주상절리길과 고석정꽃밭의 시너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시너지는 유료 관광지인 고석정꽃밭을 비롯해 DMZ안보관광, 소이산모노레일, 한탄강 물윗길에 도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올해 1~8월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 분석 결과 철원지

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이미 45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5% 증가한 것으로 올해 12월까지 철원지역의 방문객이 1000만명을 육박 또는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철원지역 방문객은 600만명, 2020년은 570만명이다. 특히 방문객의 철원지역 활동성이 69.2% 증가했는데 이는 고석정 꽃밭과 소이산 모노레일, 은하수교, 주상절리길 등 인기 관광지가 철원 곳곳에 분포돼 지역 내 이동이 활발해졌다는 분석이다.

객관적인 수치로만 살펴봐도 관광객이 늘고 있어 철원군이 내세우는 철원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앞두고 있음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증가하는 관광객을 보며 안심할 수만은 없다. 하드웨어가 마련된 철원관광지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총지휘할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밀려드는 관광객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주차시설과 식당, 화장실, 대형 숙박시설 유치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주상절리길 관광객들은 구간 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대형 관광버스가 갈말읍이나 동송읍을 방문하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관광차량들은 비좁은 도심이면 도로에 주차하는 형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물실회기(勿失好機)’라는 말이 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관광객 천만시대의 대전환기를 앞두고 불편을 겪었던 관광객들이 철원을 다시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는 타이밍이다. 주상절리길 개장 1주년을 맞아 관광객 편의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 철원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물실회기(勿失好機)’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